

연예뉴스 HOT 5

서태지 공연 소환...MBC 3월 '집콕콘서트'



서태지  
서태지의 공연을 TV로 다시 본다. MBC가 3월15일 밤 10시40분 '집콕 콘서트'를 통해 서태지가 2015년 9집 활동 당시 펼친 전국투어 '콰이 어트 나이트' 실황을 방송한다. MBC는 3월1일과 8일에 이어 15일 서태지 콘서트를 특별 편성한다. 3월1일 시작하는 '집콕콘서트'는 지난해 데뷔 30주년을 맞았던 이승환의 콘서트 '무작전설'을 시작으로 8일 밴드 잔나비의 무대를 방송으로 선보인다. 서태지는 17일 MBC를 통해 "오랜 시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우리가 이번 '집콕 공연'들을 통해 다시 만나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이즈 멤버 한상일, 사망설 해프닝



한상일  
1990년대 인기그룹 노이즈의 멤버 한상일이 17일 사망설 해프닝에 휩싸였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오늘 아침부터 저에게 지인들의 전화가 많이 왔다. 제가 죽었다고요. 문자나 연락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돈 입금이나 장례식장 가지 마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공개한 부고 문자 속 고인의 이름이 한상일과 같아 벌어진 상황이었다. 한상일은 1992년 천성일·홍종구·김학규 등과 그룹 노이즈의 멤버로 데뷔해 '너에게 원한 건' '상상속의 너' 등 히트곡을 남겼다.

배우 진선규, 코로나 검사 음성 자가격리



진선규  
배우 진선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17일 소속사 엘줄라이엔터테인먼트는 "진선규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그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았다"면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선규는 2주간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그의 아내인 배우 박보경 역시 진단검사를 받았다. 한편 할리우드 스타 기네스 펠트로노는 이날 자신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때 감염됐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임시완, 화이트데이 온라인 팬미팅 개최



임시완  
연기자 임시완이 '화이트데이'인 3월14일 온라인 팬미팅을 연다. 임시완은 이날 '2021 봄 산책 위드(with) 임시완'을 개최한다. 네이버 브이 라이브 플러스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국내외 팬들을 만난다. 특히 그는 작사에 참여하고 부른 드라마 '런 온'의 OST '나 그리고 너'를 라이브 무대에서 선보인다. 또 자신의 연예활동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공개할 예정이다. 임시완은 최근 '런 온'을 마치고 예능 프로그램 '바퀴 달린 집' 출연을 기다리고 있다.

신동엽 'SNL 코리아' 새 시즌도 MC



신동엽  
개그맨 신동엽이 'SNL 코리아'를 다시 선보인다. 신동엽은 'SNL 코리아'의 전 시즌을 함께했던 안상휘 PD와 손잡고 올해 하반기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온다. 'SNL 코리아'는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신동엽은 2011년부터 17년까지 모두 9편의 시리즈에 메인 MC로 참여해왔다. 'SNL 코리아'는 미국 NBC의 최장수 코미디 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aturday Night Live)'의 한국 버전이다. 제작사 에이스토리는 17일 'SNL' 판권을 보유한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룹의 사업 부문 NBC유니버설과 이와 관련한 포맷 계약을 체결했다.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 3월말 개봉 확정



한국영화, 기지개 켜 볼까?

설경구(왼쪽)와 변요한이 주연한 이준익 감독의 신작 '자산어보'가 3월 개봉하며 흥행의 모멘트를 연다. 사진제공 |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1000만 감독에 설경구·변요한 포진 유배된 정약전·심 청년 창대 이야기 좌석 거러두기 완화로 신작들 기대감 '한산' '서복' '비상선언' 등 개봉 예정

영화 '왕의 남자'로 1000만 흥행을 일군 이준익 감독이 3월 신작을 내놓으며 극장가 활력을 이끌어낼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설경구와 변요한이 주연한 영화 '자산어보'를 통해 새롭게 흥행에 도전한다. 이에 올해 기대작으로 꼽혀온 또 다른 작품들의 향후 개봉 일정

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산어보'의 투자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은 17일 "영화 '자산어보'를 3월31일 개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은 "영화 '사도' '동주' '박열' 등 작품으로 역사 속 인물을 새롭게 조명해온 시대극의 대가 이준익 감독의 열네 번째 작품"이라고 '자산어보'를 소개했다. 영화는 어류학자 '자산어보'의 저자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된 뒤 출세를 꿈꾸는 심 청년과 나누는 우정을 그린 이야기다. 설경구가 정약전 역을 맡아 첫 사극 영화에 도전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또 흑산도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청년 역은 변요한이 연기했다. '자산어보'는 이미 2019년 가을 모든 촬영을 마치고 지난해 개봉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개봉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2020년 기대작으로 꼽혔던 만큼 개봉과 관련한 행보가 영화계 안팎의 관심을 모아왔다. '자산어보'가 3월 개봉을 확정하면서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장가에도 다소 활력을 불어넣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최근 애니메이션 '소울'이 코로나19 3차 유행 상황에 개봉한 뒤 17일 현재까지 160만여 관객을 모으며 장기 상영하는 등 상황이 다소 나아진

국면이어서 더욱 그렇다. 최근 다중이용시설인 극장의 좌석 띄어앉기 조치가 완화한 여건도 여기에 힘을 얹는다. 무엇보다 '명량'으로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다시 쓴 김한민 감독의 신작 '한산:용의 출현'을 비롯해 이미 지난해 한 차례 개봉을 연기했던 '서복', 송강호·전도연·이병헌 등이 의기투합한 '비상선언', '해운대'와 '국제시장'으로 '쌍천만 흥행' 성과를 거둔 윤제균 감독의 '영웅', '도둑들'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등 기대작들이 잇달아 관객과 만날 예정이어서 올해 극장가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하는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조병규 학폭' 주장 A씨, 수사의뢰하자 거짓 인정

"사과하는 선에서 선처해 달라"

최근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스타들의 학교폭력 의혹 파문이 연예계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부 연예인에 대한 의혹 제기가 "허위"로 밝혀지며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 최근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으로 인기를 모은 연기자 조병규가 17일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과거 그와 뉴질랜드에서 함께 고등학교를 다



녔다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조병규는 2018년에도 관련 의혹에 휩싸였지만 적극 부인한 바 있다. 이에 조병규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전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난 오후 "해당 허위 게시물 작성자가 당사로부터 연락해 게시글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후회한다며 사과하는 선에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면서 "다시는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법적 대응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개그맨 출신 권영찬 상담심리학 박사는 "일부에서 단순한 싸움이나 싫어하는 감정을 학교폭력으로 왜곡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그에 따른 영

통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연예인들의 관련 의혹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최근 JTBC '싱어게인' 출신 가수 요이리와 보이그룹 TO.O의 멤버 차용기가 잇따라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된 뒤 이를 인정한 가수 진달래는 4일 출연 중이던 TV조선 트로트프로그램 '미스트롯2'에서 하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요이리와 차용기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나설 조짐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고막여친 권진아 "6가지 내 색깔 담았어요"

오늘 미니음반 '우리의 방식' 내바 타이틀곡 '잘 가' 등 모두 프로듀싱

신동엽 'SNL 코리아' 새 시즌도 MC

개그맨 신동엽이 'SNL 코리아'를 다시 선보인다. 신동엽은 'SNL 코리아'의 전 시즌을 함께했던 안상휘 PD와 손잡고 올해 하반기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온다. 'SNL 코리아'는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신동엽은 2011년부터 17년까지 모두 9편의 시리즈에 메인 MC로 참여해왔다. 'SNL 코리아'는 미국 NBC의 최장수 코미디 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aturday Night Live)'의 한국 버전이다. 제작사 에이스토리는 17일 'SNL' 판권을 보유한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룹의 사업 부문 NBC유니버설과 이와 관련한 포맷 계약을 체결했다.

작곡한 앨범을 들고 돌아왔다. 18일 내놓는 새 미니음반 '우리의 방식'이다. 2019년 9월 정규 2집 '나의 모양' 이후 1년 5개월 만에 다. 타이틀곡 '잘 가'를 비롯해 '우리의 방식', '꽃밭', '어른처럼' 등 6곡을 모두 자작곡한 것은 물론 처음으로 메인 프로듀싱까지 맡았다. 앨범을 발표하기 전 날 서면으로 만난 권진아는 "아직 프로듀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많이 쑥스럽지만 이런저런 고민을 거친 지금, 많은 것들이 또 다르게 보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 곡 작사·작곡을 통해 제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놓고 보니 저만의 색깔이 담긴 앨범이 나왔다"고 뿌듯해했다. 앨범은 권진아가 화자가 돼 일상에서 마주하는 감정을 여섯 편의 단편소설처럼 풀어낸 작품집처럼 엮었다. 그는 여섯 곡의 가사 속 많은 문장들에 "저의 감정과 경험을 담았다"고 말했다. 프로듀서로 처음 나서기 위해 용기도 필



섬세한 음색으로 매력을 과시해온 가수 권진아는 동료 가수들의 끊임없는 협업 러브콜을 받아왔다. 사진제공 | 안테나

요했다. 소속사 안테나의 대표이자 선행가수인 유희열의 도움이 컸다. 유희열은 권진아의 앨범 제작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권진아는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용기를 주셨다"면서 "그래도 직접 해보라고 먼발치에서 음

원을 해줬다"며 웃었다. 권진아는 동료 가수들에게는 러브콜 1순위다. 최근 개코와 협업한 '마음이 그래'가 실시간 음원차트 1위를 기록했고, 다양한 가수들로부터 콜라베이션 제의를 받는다. 이번 앨범에서도 동료들의 도움을 받은 권진아는 "언젠가 꼭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은 가수"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선배 양희은이다. "꿈은 이뤄질 것"이라는 믿는 그는 "모든 가수들의 로망이 아닐까"라며 "선생님과 함께 장르 불문하고 어떤 노래라도 함께 불러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선우정아와 황소윤의 영상도 많이 보고 있다"며 기회가 되면 함께 호흡을 맞춰보고 싶은 가수 수로 꼽았다. 권진아는 올해 데뷔 6년차가 됐다. 2013년 방송한 SBS 오디션프로그램 'K팝스타' 시즌3부터 싱어송라이터로 성장하기까지 "아직 같길지 못했다"며 "대중이 'K팝스타' 시절을 언급하지 않고 지금의 저를 설명할 수 없을 거다. 그래도 나는 성장하고 있지 않다. 출발선을 잊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는 가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